



# 메시 “PSG서 1년 더 뛴다”

리오넬 메시가 20일(현지시간) 화요일 새벽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리오넬 스킵 로나 감독과 함께 FIFA 월드컵 트로피를 들고 배리고 있다. 뉴스

2022 카타르월드컵에서 생애 첫 우승에 성공한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35·아르헨티나)가 소속팀인 프랑스 프로축구 리그1 파리생제르맹(PSG)과 계약을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매체 르파리자앵은 21일(현지시간) “메시와 PSG가 최소 1년 이상의 기간을 조건으로 계약 연장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PSG 수뇌부는 메시의 에이전트 역할을 맡은 아버지 호르헤 메시와 월드컵 기간에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이 매체는 이어 “메시가 휴가를 마치고

## 초호화 공격라인에 대만족... 잔류 결정 FC바르셀로나 이적설 없던 일로 일단락

돌아와 정확한 계약 기간 등 세부 사항을 확정지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럽축구 이적시장 전문가인 파브리시오 로마노도 메시가 PSG와 구두 합의를 마쳤다고 주장했다.

내년 여름 PSG와의 계약이 만료되는 메시는 친정팀 FC바르셀로나(스페인)와 데이비드 베컴이 공동 구단주로 있는 미

국프로축구(MLS) 인터 마이애미 등으로의 이적설이 제기됐다. 하지만 PSG와 새로운 계약을 앞두고서 이적 무리는 일단락됐다.

메시는 PSG에서 네이마르(브라질)·킬리안 음바페(프랑스) 등 초호화 공격진에 만족하고 있으며, 가족도 파리 생활을 즐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메시는 이번 카타르월드컵 결승전에서 프랑스를 상대로 멀티골을 터트리며 아르헨티나의 우승을 견인했다. 아르헨티나는 결승에서 프랑스에 4-2로 승리했다. 아르헨티나가 월드컵 정상에 오른 건 1986년 멕시코 대회 이후 36년 만이다. 수많은 우승컵을 획득했음에도 유일하게 월드컵 우승만 없던 메시는 카타르월드컵에서 생애 첫 월드컵 트로피에 입맞춤했다.

메시는 이번 대회서 7골 3도움으로 골든볼(최우수선수상)도 거머쥐었다.

스카이데일리/뉴스



## 지소연, 가디언 선정 세계 여자 축구선수 85위

### 지난해 22위에서 큰 폭 하락

한국 여자축구 ‘간판’ 지소연(수원FC·사진)이 세계 여자축구 선수 85위에 올랐다. 영국 매체 가디언은 22일(한국시간) 2022년 최고의 여자 축구선수 100인 중 71위부터 100위까지 순위를 공개했다. 지소연은 85위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22위에서 큰 폭으로 하락했지만

여전히 톱100 안에 포함됐다. 가디언은 “지소연은 첼시에서 영광스러운 8년을 보냈고, 마지막 리그와 FA컵 우승을 차지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아시아축구연맹(AFC) 여자 아시안컵에서 5골로 한국의 준우승을 이끈 지소연은 유럽에서 오래 뛴 것으로 예상됐지만 한국으로 돌아왔다”고 덧붙였다. 지소연은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영국에서 뛰었다. 또 2021~2022시즌 첼

시 위민의 잉글랜드 여자축구 슈퍼리그(WSL)와 잉글랜드축구협회(FA)컵 2관왕 달성에 기여했다.

이후 지난해 여름 영국 생활을 접고 WK리그로 돌아와 수원FC 유니폼을 입었다. 지소연은 WK리그 하반기 5경기에 출전해 5골을 기록, 팀을 플레이오프까지 진출시켰다.

가디언은 “지소연은 아시아 여자축구의 아이콘”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 ‘캔디’로 X·MZ세대 대통합

NCT 드림, 윈터 스페셜 이벤트 H.O.T 강타, 스페셜 MC로 참여

그들 ‘엔시티 드림(NCT DREAM·사진)’이 X세대에게는 향수를 자극하고 MZ세대에게는 새로움을 선사하는 세대 통합의 시간을 마련했다.

22일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엔시티 드림은 21일 오후 8시 ‘엔시티 드림 윈터 스페셜 이벤트 캔디’를 서울 경희대 학교 평화의전당에서 열었다.

이번 공연은 H.O.T의 ‘캔디’를 추억하는 이들에게 엔시티 드림 버전을 사랑하는 팬들까지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 기획된 만큼 강타가 스페셜 MC로 자리했다.

첫 번째 코너로 ‘내 가족은 클럽(CLUB) H.O.T. 나는 엔시티즌(NCTzen)’을 주제로 신청한 사연을 소개했다. 사연을 바탕

으로 1996년과 2022년의 팬 문화를 비교해 보는 시간도 이어졌다.

강타는 활동 당시의 기억을 되살려 유쾌한 설명을 덧붙이는 등 MC로 활약을 펼쳐 재미와 흥취를 모두 더했다.

더불어 온 가족이 함께 즐긴다는 공연의 취지에 맞게 2000년대 예능 ‘동거동락’을 콘셉트로 ‘2022 동거동락! 세대공감 퀴즈쇼’도 진행해 재미를 배가시켰다.

엔시티 드림은 겨울 앨범 타이틀 곡 ‘캔디’와 수록곡 ‘그레듀에이션(Graduation) 비트박스(Beatbox)’ ‘사랑한다 뜻이야’ 등 다채로운 무대로 선보였다.

공연 말미 엔시티 드림은 “H.O.T. 선배님들이 좋아하셨던 어머니와 엔시티 드림을 좋아하는 딸이 ‘캔디’로 교감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서 기쁘다. 이 곡을 리메이크할 수 있어 기뻐는데, 이렇게 세대가 통합할 수 있는 시간까지 있어서 더욱 영광이다”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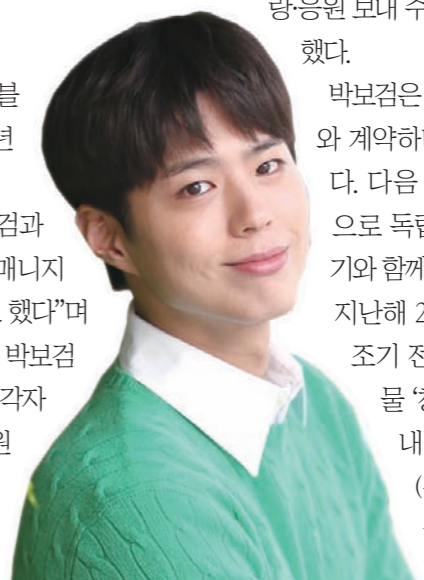
## 박보검, 10년 만에 블러썸엔터 떠난다

내년, 영화 원더랜드로 인사

음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사랑·응원 보내 주길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배우 박보검(사진)이 블러썸엔터테인먼트와 10년 만에 이별한다.

블러썸은 22일 “박보검과 긴 논의 끝에 이달 말 매니지먼트 업무를 종료하기로 했다”며 “오랜 시간 동고동락한 박보검 뜻을 존중하기로 했다. 각자의 자리에서 앞날을 응원하기로 했다”고 알렸다. “박보검에게 감사의 마



박보검은 2011년 싸이더스HQ와 계약하며 연기자 길을 걸었다. 다음 해 담당자가 블러썸으로 독립, 배우 차태현·송중기와 함께 회사를 옮겼다.

지난해 2월 코로나19 여파로 조기 전역했으며 티빙 예능물 ‘정춘MT’로 인사했다. 내년 영화 ‘원더랜드’(감독 김태웅)로 관객들과 만날 예정이다.

세계 최대 드라이버 스위트스팟 영역 75mm  
세계 최대 드라이버 페이스 면적 5040mm²

# 550cc의 헤드로 '똑바로' 더 멀리 날린다.

골프클럽 역사상 최대의 스위트스팟으로 타사의 고반발을 초월하는 성능

**한계를 넘어선 \*세계 최대 체적의 550cc 드라이버**

- 반발계수 C.O.R 0.92의 극초고반발 / 동일 반발계수 기준 세계에서 가장 안정성 높은 견고한 헤드(35m/s의 타구 2,000번 이상 견딤)
- 현존하는 모든 고반발 드라이버 중 최대의 헤드체적인 550cc를 실현하여 타사 드라이버 대비 훨씬 더 큰 관용성과 긴 비거리를 실현
- 골프클럽 사상 가장 넓은 페이스/스위트스팟 넓이를 통해 타사의 고반발 클럽 대비 훨씬 더 안정적으로 똑바로 쏘는 직선상의 타구를 구현

**New**  
**신제품**  
비욘드 V550 드라이버

시타 | 상담문의 **1800-6007**